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9호 현대불교 25
2008년 10월 1일(음력 9월 3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놓으라!

여러분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오면서도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 지조차도 모르고 애라는 고통과 쓰라린 눈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도 바람결같이 돌아가서 잠시잠깐이고, 고(苦)로 인해 아프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가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만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걸어 가야만 올바른 견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비유해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오조 홍인 선사님 「금강경」 강의를 하시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성이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마음이 내 불성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불성이 스스로 그달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체 모든 생활이 걸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요건 내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조금 더 보태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랬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즉 이 세상 이치를 종합해서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가 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직결돼 있느냐.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천지의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 아니라,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의 진리는 인간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니라.’ 이랬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대승 소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하면 잘살고 못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듯이 ‘사람’ 하면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좀 전에 육조 스님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 참인간의 마음,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그 마음,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어떠한 대(對)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지 일러 드리겠습니다.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고정됨이 없이 참나 생활을 하는 것을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는 아내가 “여보, 인제 오세요?” 하면 남편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아빠!” 그러고 들어오

니가 남편 됐던 건 없어지고 금방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 인제 오니? 나 좀 보자.”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또 어머니한테로 가니까 고만 아들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화하는 세상입니다. 화해서 잘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정되게 보는 거 고정되게 듣는 거, 고정되게 가고 오는 거 고정되게 먹는 거,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이 고정되게 머물러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진리라고 도요 길이고 참선이고 참입니다. 이 공부하는 데는 대승이다 소승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간편하게 얘기합니다. 상을 차려 놓는 데에 집시도 있고 종지도 있고 사발도 있고 대접도 있고 큰 집시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으니 상에다가 온통 다 차려 놔줍니다. 그런데 거기 대승 소승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지는 안 쓸 거다. 대접만 쓸 거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지만 써야겠다. 이게 좋다.” 이런다면 종지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리며 ‘대접만 쓸 거다.’ ‘큰 그릇만 쓸 것이다’ 한다면 큰 그릇만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며 ‘집시만 쓸 것이다’ 한다면 집시만 가지고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걸로 비유합니다.

일체 만법을 일심으로 들이고 낼 때에 ‘졸지도 않고 늘지도 않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걸리지 않게 몽땅 버려서 몽땅 갖추어 가지고 있게 만드는 실천공행하는 법입니다.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이 정법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론으로만 경을,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위로 께고 옆으로 께다 하더라도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거는 이차적인 문제죠. 진짜 배고프고 정말 목마르고 갈증이 날 때는 냉장고 문을 딱 열면 한 그릇 쪽 마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야 죽고 사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니 그건 이차적이지요.

목마를 때 그냥 마시는 것이 그대로 참나의 행이요 정법이요 중용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참선이며 그대로 행선입니다. 아주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 무슨 이론이 들어갑니까? 거기 무슨 이의가 불순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있을 게 있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이 자기 몸과 가정과 사회, 국가는 물론 세계, 우주까지도 한 손에 넣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원통력을 길러서 원심력으로써 행을 하셔야 합니



그림 · 최주현

다. 내가, 즉 말하자면 ‘아내다’ 하면 벌써 가설이 된 거고 ‘자식이다’ 하면 가설이 된 겁니다. ‘남편이다’ 하는 것도 가설이 된 겁니다. 전선이 가설이 됐으니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까지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따지고 이게 옳으나 그르냐 하는 시비가 왜 붙습니까?

예전에 뉴욕에서 온 병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부축을 받고 왔습니다. 10년이나 그렇게 앓고 있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꼭지가 안 떨어져서 서울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날더러 “병이 이렇게 한 10년이 가도 안 낫습니다.” 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어떤 걸 알았으면 병을 나한테 내보 보세요. 그러면 병을 고쳐 주리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로 가서 병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거기

서 탁 트여졌던 말입니다. 병을 내놓으면 고쳐 주겠다고 했더니 말입니다.

한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한생각에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그 마음의 한 도리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합니다. 꿈을 꾸고도 ‘이것 참 잘못 했으니 오늘 조심해야지. 이것 참 나쁜 꿈인데...’ 하고 걱정 근심을 하면 꼭 나쁘게 돌아옵니다. 그거는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 아버지가 됐다가 또 금방 남편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이러듯이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안되는 것도 한 참나오 되는 것도 한 참나옵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인공이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 주인공이 있으니깐 그런 거 뭐, 금방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고 믿으면 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신, 자성을 믿

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들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리고 모든 착을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착을 때시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부처도 써다 불교도 누구를 찾아가서 잘된다 못된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으셨었고 그렇게 기복으로 많이 다니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질러 놔 버려라 하는 것은, 참나의 생활이니깐 잘못된다 잘된다 이것을 떠나서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으니깐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있으니깐 가정도 있고 우주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아요? 나부터 알아야죠! 각자 여러분이 모두 나부터 알아야 나를 주기도 하고 참, 보살행으로써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생겨요. 이게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두루 모가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나의 물질적으로 살던 습을, 수억억 광년을 거쳐 나오면서 인간이 되기까지 진화되면서 살아온 그 습을 녹여야 합니다. 인간이 됐으니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을 떼려면 ‘아! 내 주인공은 용광로와 같다. 일체 우주와 천지가, 태양이, 월세계가, 혹성들, 별성들 일체 모두가 다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으니 직결이 돼 있는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직결돼 있으니깐 내가 마음먹는 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부터 알게 되면 차차차차 실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믿게 되고 ‘아하, 나쁜이 아니로구나! 역대 조사들도 일체제불도 다 나한테 직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색경을 보시죠. 그림자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는데 물어 줄 사람도 없어서 갖다가 놓고 선 영영 울었습니다. 문으려고 해도 땅이 얼어서 손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대기보다 들들 팔아 놓은 위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걸쳐 놓고 술까지도 덮어 놔주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울고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죽은 아이가 출다고 자기 두

26면으로 계속

매일경제신문 인체영양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서 박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문식처 조성필의의.
- ⑨ 부록 : 십이생상승(十二生相)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간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종당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증)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깨끗한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킵니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민)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한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텅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범상

서원불교 특 043-647-2378, 011-467-1472